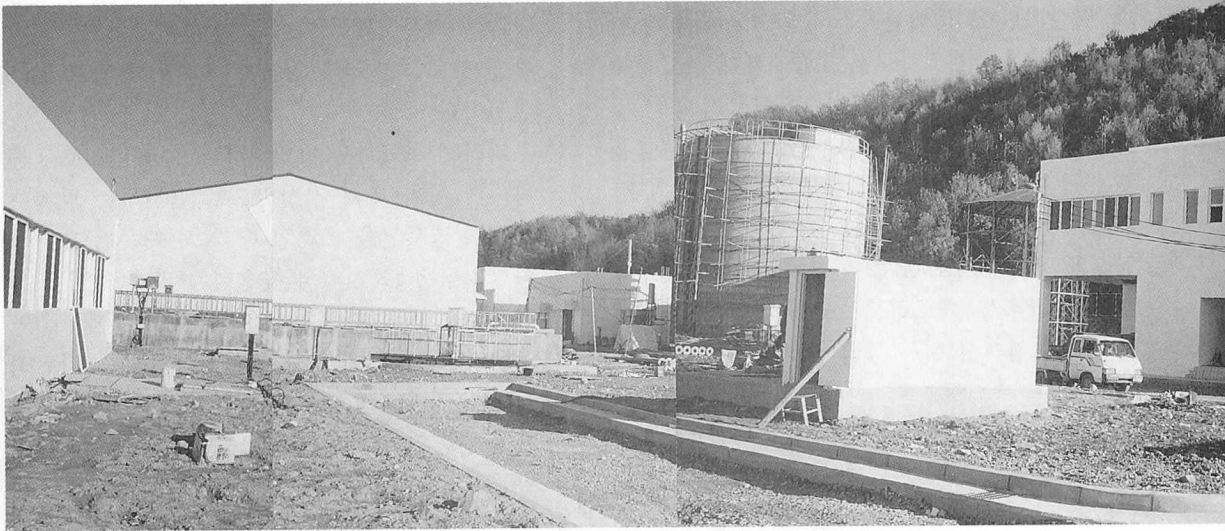


# 가축분뇨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홍성군

- 이 병 석 -



◎ 홍성군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전경, 마무리공사가 한창이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살고있는 우리에게 축산물은 이미 우리의 식생활에서 빠져서는 안되는 아주 중요한 영양공급원으로 자리를 굳힌 상태다.

'96년 육류의 총 수요량은 1,230.7천M/T(돼지고기 : 732원M/T)에 이르고 있으며 국민 1인당 수요량은 '96년 27.2kg(돼지고기 : 15.5kg)정도가 소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향후 2000년에는 그 수요가 계속 늘어 총 수요량이 1,408.7천M/T, 국민 1인당 수요량은 30.1kg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하듯 육류는 국민건강에 영양공급원으로 확고히 그 위치를 점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적으로 그 위치를 지키게 될 것이다. 그 중 돼지고기는 전체 육류중 55% 이상을 공급하면서 돼지고기가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고 하겠다.

국내 돼지 사육두수는 '96년 9월 현재 650만두를 넘어서고 있으며, 호당규모는 점차 늘어나 국내 양돈산업은 기업화·전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들은 가축분뇨 처리에 따른 부담을 안게 되었으며, 나름대로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은 말 그대로 가축분뇨를 폐수로 규정 짓고 있으므로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들어 토양에

환원하고자 하는 우리 양돈농가의 바람과는 실로 그 간격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호간에 의견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좋은 해답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돼지 사육두수 31만두, 전국 7% 규모의 홍성군

홍성군의 돼지사육두수는 전국의 7% 정도에 해당하는 약 31만두가 되며 전국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가축분뇨처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보여왔으며 현재도 분뇨를 가장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하는 축산폐수 처리장은 김해, 상주, 안동, 여주, 임실, 논산지역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었으며, 홍성군도 총 예산 100억을 들여 새로이 축산폐수 처리사업소를 신축중에 있었다.



● 농가에서 수거해 온 뇨를 투입하는 축산폐수 투입구

### 어려운 주변여건 불구, 내년 3월경 가동예정

'97년 3월경 가동' 예정으로 홍성군 결성면 용호리에 건설중인 홍성군 축산폐수처리사업소(소장: 이환무)는 여러가지 어려운 주변 여건에도 불구하고 '95년 5월 사업을 시작하여 '96년 11월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시험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 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이 250톤 정도로 홍



● 홍성군의 축산폐수처리사업을 주도하는 주인공들

(좌로부터 축산폐수 처리사업소 황성순 계장, 이병임 환경주사보, 본회 김건태 홍성지부장, 김기태 행정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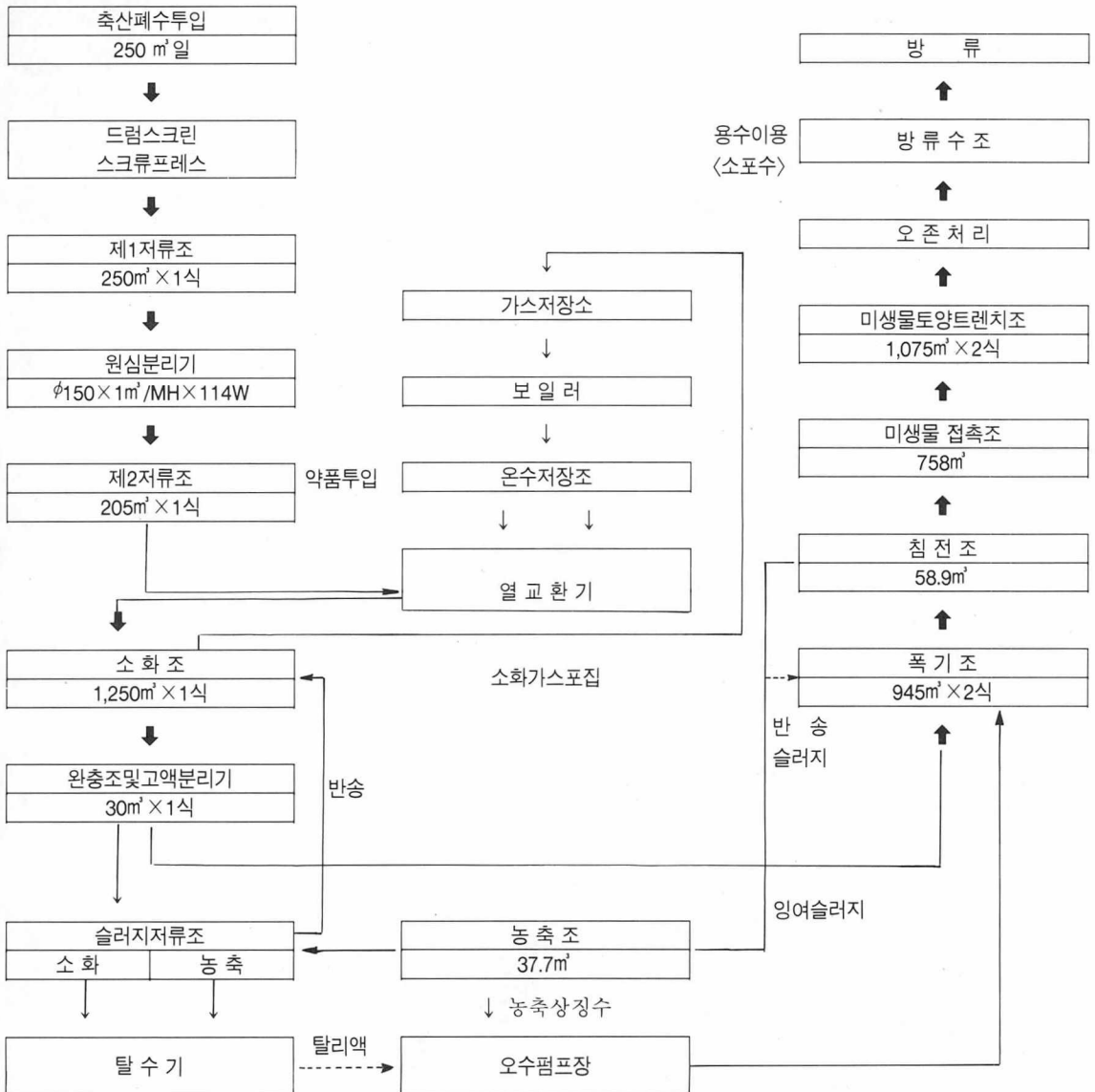
## 취·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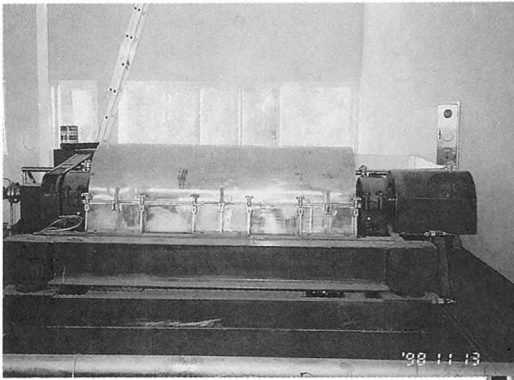
성균에서 나오는 양의 1/4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한다.

홍성군에서 설치하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는 다른 지역에서 설치·가동되고 있는 처리장과는 달리 그 처리과정상에 원심분리기, 폭기조 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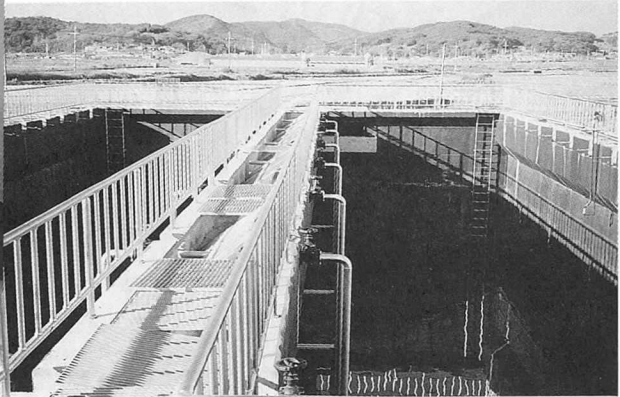
시설 두가지를 더 보강했는데 홍성군에서는 축산폐수가 정화되는데 이 두가지 과정을 더 거치게 되므로 축산폐수의 BOD함량을 30ppm 이하로 떨어뜨리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림〉 축산폐수(처리공정)





◎ 이번에 홍성군에서 시설하는 폐수처리사업소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처리공정이 두가지가 추가되었는데 원심분리기와 폭기조 보조시설이다. (원심분리기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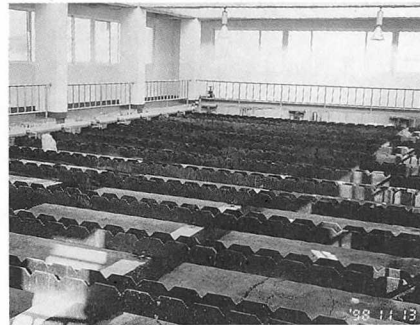
◎ 폭기조 보조시설

축산폐수처리장의 폐수처리방법은 활성오염을 이용, 미생물첨가를 통하여 정화하는데 그 단계가 19단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정화되며 전체라인이 100% 자동화로 완벽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특히 원심분리기와 폭기조 보조시설 보강으로 이 처리공정이 다른 곳에 모범적인 표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폐수는 일반농가에서 나오는 노를 저장조에 저장해 놓으면 폐수처리사업소에서 일정액의 수거료를 받고 노를 수거해가는 방법으로 사업이 되는데 아직 수거료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참고 : 다른 지역은 노 1ℓ당 7원)

이번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되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를 통해 필자는 홍성군 당국의 군내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에 대하여 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고자하는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으며, 전국에서 축산업이 가장 활발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지방정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육류의 공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반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며,



◎ 미생물 접촉조 (이 시설은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톱밥토양여과시설을 이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축산농가가 육류의 생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게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의미가 큰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라 어수선하고 축산폐수 처리가 100% 된다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이번에 우리가 설치하는 처리장은 그 처리과정에서도 두가지 단계를 더 추가하는 등 부단히 연구를 했으므로 내년 3월경 가동이 된 후에는 홍성군내 양축가들에게 큰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홍성군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시설운영계 이병임씨는 말한다.